

## 제 21강 (체험)성경의 맥을 잡아라

- 문봉주 대사

2004. 8. 7. 온누리교회 서빙고

### 다윗의 생애

17세 소년, 기름부음/ 30세 통일이스라엘의 왕/ 80세까지 40년간 왕의 세월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것이 엄청난 축복의 기간이었음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음.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됨.

### 2. 다윗 왕

#### 가. 특징

##### 1)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before 칭의의 구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예수믿고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하셨고, 그 사랑/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99.9% 작용하였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면, 계속 죄짓게 되는데...

-after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10%) 하나님이 다 해주심 (90%)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하심.(빌2/12-13)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 (칭의의 구원), 조그만 씨앗이 들어와, 점점 자라 열매맺게 되는 것 (성화의 과정)임. 날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만큼,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됨. (겔 사람이 변화됨)

\*겔 사람(흔)

a) 지 (생각)-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말씀)을 날마다 갈망하며 먹는 성도는 그 생각이 변화함. 다윗같이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않고,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 없음.>하나님의 말씀을 구함.

b) 정 (감정)-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 다윗의 시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온전한 기도요, 찬송이었음. 150편중에서 2/3에 해당되는 것을 쓴 다윗의 시편. 세상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당대에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이었음. 사울의 악사로 취직함(왕의 길로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임.

c) 의 (의지)-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교회의 훈련을 통해: 교회안에서 자기를 항상 낮추도록 하심. 헌금 (내 것을 드리려는 것)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 주려는 것/ 봉사하려는 것

-환경을 통해: 삶 가운데 오는 엄청난 고난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축복의 시작임.

## 2) 영적 감각과 정치적 감각의 균형

- 충만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왕으로서 필요한 통치적인 세상적인 감각도 뛰어났음.  
(예) 요시아왕 (영적감각 뛰어났지만,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므깃도에서 억지로 막아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함.  
.세상의 왕이면, 왕의 일도 잘 해야 함.  
(예) 솔로몬 (초기에, 영적감각 뛰어났지만, 이후에 정치적감각으로 이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정략결혼 등으로 망하게 됨.  
-다윗은 이 두가지를 겸비한 사람.

### 나. 세워짐

#### 1) 기름부음

-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미 마음을 옮기셨다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심.  
-17세 된 양치기소년  
.이스라엘땅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이름없는 시골의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소년. 나는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날 선지자를 보내, 기름부으셔서 왕으로 삼음.  
.사울왕은 악령이 괴롭혀서 발작함. 처음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는데... 문제는 왕의 말씀을 두번이나 거역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옮기셨다면 그만두면 되는데...왕 자리라는 자아에 엄청 묶여서...-악령에 시달리는 성도는 자아에 묶인 사람임.

#### 2) 궁중악사로 취직

- 왕과 멀리 떨어져서 수금타고 있었음.  
.사울왕은 아직 다윗의 존재를 의식못함

#### 3) 골리앗과 대결

- 골짜기에 양쪽 군대 대치/ 대표만 나와라/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나아가 “내가 비록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양을 꺼낼 때에도, 암사자의 이빨에서 구해주신, 그분의 능력을 믿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골리앗과의 대결을 자청함.-여호와의 이름이 귀하어 목숨을 내걸.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다윗의 믿음 (삼상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국민적 영웅이 됨>이때부터 사울왕의 박해시작.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소녀들의 노래가 사울을 뒤집히게 만듦.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누구인가 했는데... 저자가 바로 다윗이구나 알았을 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함.

### 다. 박해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

**1) 약사로 취업(FULL TIME)**

-사울왕은 죽일 기회를 찾기위해서... 다윗의 하프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창을 던지는데도 안 죽고, 피하니까, 내손으로 죽이지말고...

**2) 블레셋으로 죽이리라**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 100명 죽여서 남자 성기의 끝 띄어서 foreskin 블레셋의 손에 죽게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상급을 제시함. (왕의 사위가 되게 하는...)

-양피 200개를 베어왔음: 사울왕은 두손들고, 딸(미갈)을 줌. 첫날밤에 군대보내서 암살하려고 하는데, 딸(미갈)이 밧줄에 묶어 내보냄.

-도망가면서, 다윗이 생각해보니, 절대군주시대 왕이 본인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텐데... 군대를 풀어 암살하려고할 때, 사울이 다스리는 이땅에서,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막연하였을 것임.

**3) 성소로 피신**

-[실로](성소)로 도망감. 그 당시 성소는 아직 tent로 만들어 놓았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 (매일 더워진 떡(진설병)이 식을 때 갈아놓는 것을 다윗에게 줌. 모든 전리품은 성소에 보관하는데, 골리앗의 창이 그곳에 있어서 얻게 됨. 도망하려는데, 사울이 쫓아옴. 사울은 성격이 뒤집어지니까, 하나님께 대적하여 제사장 85명 모두 죽이고, 그들의 가족과 가축 모두를 죽임.

\*내가 가진 왕위를 지키겠다는 욕심으로,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게 됨.

**4)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윗의 고백 (시23편)'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1)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2)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3)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4)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5)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6) ? 죽음의 위협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기적을 매일 체험하며,고백하는 다윗,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였는가?

.아기스왕이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감. 아기스왕은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청년 다윗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 다윗이 위기의식/ 미친짓/ 도망감.

.어디로든지 도망갈 곳이 없음. 이제 나는 끝이구나, 어디로 가겠는가? 인생의 최악의 기로에 있을 때, 고난이 가장 깊어졌을 때... 당할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환난의 때에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동굴에 숨게 됨.(동굴로 인도하심)

**라. 반격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이제는 숨통을 틔우심**

**1) 아들람 동굴**

.몸을 감추기 위해 숨겼는데,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임.

-유다지파 400명의 두목

.다윗이 유다지파이므로, 사울이 박해하였음. 박해를 피해 숨어지낸 유다지파 용사들이 우리가 돕겠다고 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천군만군을 얻은 것임.

## 2) 엔게디 동굴

.큰바위 안에서 물이 철철나오는(광야가운데) 아름다운 곳에 몸을 숨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옴. 하나님이 블레셋대적하라고 했는데, 주업무는 다윗죽이는 것이었음. 사울이 [밭]을 가리기위해서, 동굴에 들어감. 숨어있던 다윗의 용사들, 단칼에 죽일 수 있었으나 다윗의 만류.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의 기름부어 세운 왕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 원수값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 다만 사울왕에게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기위해, 옷자락을 살짝 베어냄. 사울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를 다시는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했을 때, “ 너 대단하구나. 이젠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거짓말하고…”

## 3) Zip광야/ 절정에서 후퇴

-Zip광야: 다윗이 Zip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위하여 쫓아갔었는데, 거꾸로 다윗이 반격한곳. 몰래 숙소텐트에 침입해서, 그때에도 창과 물통만을 증거로 들고 나옴. 그때 보초서던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임. -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는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너가 아니라, 네 아들에게 하게 하겠다”고 하심.

.’ 사울왕이여, 단창에 죽일 수 있었지만… 다시는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사울왕은 통곡했다고 함. 너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고백… 이정도 했으면 안 쫓아오겠지 자만할 수 있었으나… 다윗은 굉장히 똑똑했음. 다윗의 후퇴 결심.-절정에서 후퇴는 좋았으나 그 방식이 문제였음.

- 내 생각으로 결정(‘블레셋으로 도망가리라. 이것이 상책이라…’>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됨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울이 tent를 지었으므로 (오늘날 어떤 곳을 딱 찾아내서 지명하는 것: Zip Code의 유래)

-시편을 통해 엄청난 고백을 함. “그 하나님 여호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적 블레셋에게로 피하라. 이것이 상책이라” 그때만큼은 내 생각으로 결정함.

## 마. 블레셋망명

-아기스왕이 환대/ 2중적 행동/ 엄청난 환란

.아기스왕2세는 평소에 다윗을 동경했던 사람임. 이 사람을 아마 다윗이 알았을 것임. 환대하고 블레셋의 땅, 다윗의 일행에게 시글락을 주었음.

### \*엄청난 환란

#### 1) 동족과의 전쟁에 동원

-블레셋의 아기스왕이 이스라엘과의 대격전에 다윗을 동원함( 자기백성과 엄청난 전쟁을 하게됨. ) 남쪽 아말렉족속을 가꿈 치고, 전리품을 기도에 보내면서, 유다왕족 남부쳐서 뺏은 것으로 거짓보고함. 유다왕국에게 전리품 주면서, 블레셋의 전리품이라고 거짓보고 함. 왕

에게 아부함. 많다고 쫓아가면서... 사울왕 (이스라엘)과의 접전에 동원령. 엄청난 위기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호와 하나님. 평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주심 (천사를 통해서) 아기스왕 동료들에게 이상한 마음을 들게 하여 다윗을 의심하게 함.>다윗에게 시글락에 가서 평안히 쉬라고 함. 그러나, 돌아오니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음. “심은대로 거두리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집을 태우고, 아내/아이를 모두 포로로 끌어감. 지도자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하였음. 아말렉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족이 잡혀가지 않았느냐고...

## 2) 아말렉침입

-다윗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기도의 능력임)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을 것임.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믿고/의지했던 동료가 자기를 배신하였으니... 이 이상 내가 더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때 하나님에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하면서! (시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 고백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임. 기도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여, 기쁨으로 시편을 노래함.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다윗은 한번도 원망하지 않았습시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땅의 것은 전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닥친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기를 쓸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그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다윗이 고통의 절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앉히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음.-고난의 뒷편에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 사. 사울왕의 최후

### 1)엔둘무당 저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일수록,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요. 블레셋군대와 이스라엘의 최접전. 밤에 엔둘에 잠입하여 박수무당을 만나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안 버렸으므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기 위하여...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이 엄청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무엘을 불러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함. 그런데 박수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 사울을 저주.

### 2) 화살에 중상

-블레셋과의 격전도중 화살에 피흘려 고통당하다, 사울본인이 자결함.

-다윗은 애가 작곡/ 유다왕으로 30세에 등극

.영적감각과 정치적감각이 대단한 사람임. 백성들에게 “너 이스라엘의 처녀들이여, 사울왕을 위해 슬피울라”고 함. 저 사람이 언제, 블레셋에 망명갔던 사람인지,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게 됨. 그러나 저속 깊은 곳에, 사울에 대한 적개감이 있었으면, 못했을 것임. 사울왕이 내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정금 같은 훈련이라고 하면, 사울왕을 미워만 하지는 않음.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 제가 갈 길을 제게 일러주십시오” 라고 고...>너는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지파의 왕이되라고 하심.

### 3. 남북왕조시대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남북왕조시대임.

\*아직 통일이 안되었으므로, 분열왕국은 아니었지만...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음)

.너는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라고 해서, 남북왕조간의 끊임없는 전쟁 (군대장관끼리) 사울왕의 첩을 군대장관이 사랑하는 것을, 이스보셋이 참지못해 알력이 생김.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 아브넬을 다윗은 선대했으나 요압장군이 암살함.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충성했지만, 다윗의 명령을 가끔 어김)

다윗은 망명을 받지못하겠다고 돌려보냈는데, 요압장군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적진의 군대장관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됨.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암살되었을 때도 “누가 하나님의 기름부은 자를 죽였느냐” 그 죽인사람을 죽였음.

.다윗: 자기의 적이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은 자를 끝까지 섬겼음. 7년 반 동안 기다리게 하신 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왕국의 왕으로 추대함.

### 4. 통일왕국의 다윗왕

#### 가. 업적

(사11/10)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던 것임.(=예루살렘성)

#### 1) 예루살렘성 도읍

\*다윗은 세상나라의 왕이 있는 수도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함.

-여부스족속/ 난공불락의 성 공격>예루살렘성으로 명명

#### 2) 블레셋 제압

#### 3) 법궤 입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들여오므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수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것임. 그때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왕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속옷바람으로 춤을 추었음.

#### 나. 범죄 (밧세바사건)

암몬족을 치기위해, 다른 장수들이 다 나가고, 왕은 그냥 있다가...범죄함.

-Bath-She-Ba 자기의 총직한 우리아의 장군아내/강간죄/살인죄 (계획적인 살인, 1급살인죄)

-선지자 나단/ 죄 지적

.남의 죄를 지적할 때,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기가 막힌 예화를 들어주어, 다윗이 깨닫게 함.

\*믿음의 사람: 자기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라고 고백함.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있음. … (시51편: 회개 기도) (시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51/7)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함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일수록, 모진 벌을 내리심. (살인죄: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네 아내들은 백주에 강간당할 것/ 불륜의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임) 그대로 당하는 다윗.

\*여럿이 함께 있을 때보다는 정말로 혼자 있을 때(모든 외적환경이 편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매우 중요함. 심심하다는 것은, 사탄에 꼭 눌러있는 것임=영적으로 눌러있는 것임.( '네 욕이 원하는 것 해라고 유혹)

고요할 때는 찬송하라.

외로울 때는 기도하라. (바로 주님이 만나주심)

괴로울 때는 주를 보라. (주님은 보이지 않으므로 말씀을 보라: 고후11장-낙심장등)

그 주님을 위해 일했던, 믿음의 선배를 바라볼 때...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임.

## 다. 압살롬의 난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음.

.압살롬은 장자를 죽여서 지방으로 귀향가게되고, 3년 만에 돌아오게 됨.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에게 진짜사랑을 주지않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받으려온 백성들에게, 대신 재판을 해주게 됨. 재판을 지혜롭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옮겨가게 됨.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성을 빠져나오는 아버지 다윗. 자기아버지를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나쁜 자식임. 나쁜 자식되게한 것도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임.

\*다윗: 늘 모든 사람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였음.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따라오며 저주할 때도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함. 다른 사람이 못살게 굴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함.

## 라. 왕궁복귀 후 업적

-사탄이 격동케 (=성령이 감동케) > 인구조사 > 재앙, 전염병

\*인구조사: 고대시대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었음.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를 위해, 고향마을로 가야하므로...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도, 가이사의 인구조사에 응하기위해

.인구조사의 동기: 얼마나 많은 세금조사/ 얼마나 많은 군대착취/ 얼마나 많은 후궁...

.실제로는 "인구조사" 하는 죄 인데, 결과는...

\*재앙, 전염병: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께서 지혜주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마당. 예루살렘의 성전터를 마련하게 하신 계기. (심판날에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임.)

-성전준비완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은 tent에 거하시니...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심

(상하7/12-13) 다윗이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거꾸로 다윗의 영원한 집을...-다윗왕위의 영속성을 약속하심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99%다 마련한 것임.

## 5. 솔로몬

(King of Solomon)-성전봉헌

-평강의 왕, 기브온 산당, 일천번제 (one thousand offering) (1천제물을 드렸다)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지혜를 구했는데, 원하지않는 부, 장수까지 주셨음. 국가가 가장 번성할 수 있는 부, 지혜를 주셨음. 솔로몬의 영광은 대단하였음. 시바의 여왕. 지혜를 보고 놀라서, 구하지않은 다른 것도 주었음. 모든 물건 위에, 다른 것도 주었음. 지혜의 씨앗 (아들까지 주었음)

\*하나님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고통의 그늘을 벗어줄 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함.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임.

-솔로몬의 범죄

.왕,규례: 여자안됨, 말병기안됨,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듣고, 기도도 안하고... 여자만 보았음. 솔로몬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되었음. 아내 1000명이나 되었는데, 또 모자라서... 이방의 많은 국가와 정략결혼하여, 이방의 공주들이 들어온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범죄.

‘정녕 이 나라를 찢어, 너희 심복에게 주겠다.’-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으나 듣지 않으므로 심판하심. 그러나 그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땅을 멸하지 않으시고, 나라를 반으로 가르신다고... 솔로몬은 지혜를 가져서,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인 잠언을 남겼으나,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멸망하였음.